

자기상(Self-Image)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II) : 인문계와 특수목적고 고등학생들의 비교

이 춘 재

가톨릭대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기상 검사(SIQYA)로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발달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련의 연구 중 하나로 특수목적고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자기상을 비교하였다. 과학고, 체육고, 기계공고 및 인문계 고교의 2학년 남학생들과 외국어고(영어전공), 예술고(미술전공), 실업고, 인문계 고교 2학년 여학생 모두 797명의 자기상 검사(SIQYA)와 Harter의 자기개념을 비교하였다.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신체상, 신체능력 및 자기가치감 영역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과학고등학교 남학생들은 가족관계, 학업능력에서 다른 고등학생들 보다 긍정적이고 친구관계와 운동능력에서는 더 부정적이었다. 여자 외국어 고등학생들은 여러 영역에서 자기상이 긍정적이었으나 여자 실업고등학생들은 여러 영역에서 부정적이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자기상과 자기개념이 학교에 따라 차이가 적었다.

오랜 기간동안 발달심리학자들은 개인이 지닌 자아, 자기개념의 구성체에 대해 그리고 그것의 발달과정에 관해, 특히 발달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관해 논쟁하여 왔다. 그리하여 1950년, 60년대는 개인의 특성으로서의 자아에 관해, 70년대에는 인지 구조로서의 자아에 관해 관심이 이동되었으나 최근들어 인지능력과 사회화 경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의 발달과정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자기 개념은 개인의 행동, 태도, 경험에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Harter, 1988), 개인의 성격, 대처, 적응, 정신건강에 중요

한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지지집단을 선택하게 하고, 이로 인해 긍정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자기개념은 아동기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사회적 환경의 변화, 주변의 사회적 지지망의 변화등으로 인해 자기개념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어린 아동기에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태도가 자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반면에 청소년기로 가게 되면 학교, 또래와 같은 주변의 지

* 본 연구는 1994년도 가톨릭 대학교 특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지나 평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Harter, 1990). 특히 새로운 학교 환경은 새로운 사회집단을 제공하게 되고, 이 집단에서의 경험은 자신의 능력, 특정분야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자아 개념 형성에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설명을 청소년기의 자기상을 측정하여 청소년기의 심리 사회적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청소년기를 전후해서 대인 상호작용에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서 청소년의 자기상(self-image)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학교 환경의 변화'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에 걸쳐 일어나는 주요한 학교상황의 변화이다. 그리고 '가족간 관계의 변화'로서, 특히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신체 및 심리적 변화에 의해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청소년에 대한 반응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그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청소년과 부모는 그들의 관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Steinberg, 1981).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에 변화가 생긴다. 또래들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좀더 구조화되어 가고 집단화되어 간다 (Peterse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Jarcho, 1984).

이외 자신의 적응력에 대한 지각이 자기 상의 구성차원이며 이는 사회적 행동이나 실제 적응이나 정신건강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일반적인 적응력(general adjustment)으로서 이것의 구성차원으로 충동통제력과 대처능력, 우수한 적응력(superior adjustment) 등이 있다 (Ebata, 1987). 이와 같은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자기상 검사(Offer의 OSIQ, Petersen 등의 SIQYA)로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한편 아동기의 자아개념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표적인 자기 개념 관련 검사에는 Self-Esteem Inventory (Coopersmith, 1967), Self-Concept Scale (Piers, 1969; Piers & Harris, 1964)등이 있는데 이들 검사에서는 인지적 능력(cognitive competencies), 신체적 기술(physical skills), 인기도(popularity), 부모의 인정(acceptance by parent), 도덕성(morality),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s), 신체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 정서반응(affective reactions) 등에 관한 반응을 측정한 후 합산하여 전반적 자기개념의 지표로 해석하였다.

Harter와 그녀의 동료들(Harter, 1982, 1990)은 기존의 자기 평가 척도들이 갖는 문제점 중에 각 검사에서 채택한 자기개념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과 각 척도를 이루고 있는 문항들의 비구조성을 보완하여 서로 분명히 구분되는 여러 차원의 소검사로 이루어진 척도를 개발하였다. Harter의 자기 개념척도(self-concept scale)는 10여년의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보고식 자기개념 검사이다. 그녀는 아동이 모든 자기개념의 하위차원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차원을 각각 평가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은 각 차원의 합과는 별도로 상위적 개념으로 따로 구성하여, 전반적 자기 가치감(Self-worth)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 좋아하는가를 측정하여 평가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문항으로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좋아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한다, 자신에 대해 행복하다, 자신이 좀 다르기를 바란다" 등이 있다. 이상의 이론적인 고려외에도 Harter는 측정 이론 상의 척도 구성의 문제를 보완하여 하위척도 간의 요인적 타당도를 지니며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가 우수한 도구를 개발하여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여러 연령집단에서 보이도록 하였다. 따라서

취학전 아동용, 국민학교및 청소년용, 그리고 대학생용의 자기 개념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알아보는 일련의 연구 중 하나로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두 가지 척도, SIQYA와 Harter의 자기개념 검사를 사용하여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 사회, 적응, 학업, 신체 및 운동, 자기가치감등에 관해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현재 여러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런 목적고의 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발달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학업능력이 우수한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과 자기 개념을 어떻게 달리 갖는지, 또 예술고나 체육고, 공업고, 실업고와 같은 목적고 청소년의 자기개념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한다.

자기개념과 학업성적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 그 중에서 Hansford와 Hattie(1982)는 자기개념과 학업성적은 약 .20-.25의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청소년기에 학업성적과 자기개념간에 있어 남자들은 정적상관이 있고 여자들은 관련성이 없었다는 연구(Chadwick, Bahr, Stauss, 1977; Fink, 1962)가 있고 10학년에서 12학년에서는 성적과 적응간에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 강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Locksley & Douvan, 1979).

자기개념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는지 학업성적이 자기개념에 영향을 주는지 그 인과적 방향도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Scherirer와 Krant (1979)는 전반적인 자기개념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지지하지 못하고, 다만 특정 요인의 자기개념은 학업성적에 약간 영향을 준다고 시사했다. Hoge, Smit, Crist의 연구는 학업성적이 6학년과 7학년에서 자기개념에 상당히 인과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업성적은 전반적인 자기개념보다는 각 학과목에 해당하는 자기개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Rosenberg(1989)는 자기존중감이 성적에 영향을

주는 영향보다는 성적이 자기존중감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결론내렸다.

학업성적이 청소년들의 자기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은 대개 지지되었다. 그러나 특정분야의 능력이 전반적이냐 자기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높은 지능을 지닌 아동의 경우 사회적 경험에 어려움을 보이고 덜 순조로운 사회적 자기 개념을 지니고 있거나, 자기 개념에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요인에 더욱 취약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Freeman, 1979). 높은 지능을 지닌 경우 아동의 우수한 능력과 평범한 학교 환경간의 불일치가 커서 이들의 부적응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달리 영재의 경우 정상아에 비해 더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긍정적인 자기 개념은 재능의 실현화(actualization of giftedness)에 역동적인 추진력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Van Boxtel & Monks, 1992). 자신을 능력이나 소질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으로 지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닌 연구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동기화하는데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개념과 자기 존중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공부하고, 연구 학습하고, 문제해결, 성취하고, 경쟁하고자 추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이 지닌 능력을 동기화시키는데 자기 개념이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능력이 또한 자기 개념에 영향을 주어 자신을 능력있다고 지각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과 관계는 명확치 않으나 그 사람이 지닌 능력과 자기개념은 상관이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실업고, 공업고, 그리고 일반고의 청소년들이 자기개념을 달리 지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차이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및 자아상을 측정하여 이들이 스스로 지각한 심리, 사회적 행동 및

적용, 학업능력, 신체 및 운동능력, 자기 가치감이 이들이 처한 학교나 친구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특수고에 진학한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와는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자아개념 및 자아상이 일반고등학교 학생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신건강이나, 적용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특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실업 고등학교, 기계공업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2학년 남, 녀학생으로 모두 856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한지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2학년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한 학교 안에서 남녀의 비율의 차이가 심한 경우(예를들어 남자:여자가 18명:135명) 남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797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학교에 따른 남녀 학생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1.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

	예술고	체육고	일반고	공고	실업	외국어고	과학고	전체
남	0	96	96	101	0	0	70	363
녀	135	0	104	0	101	94	0	43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는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및 자아상을 측정하는 두 개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1. 자기상 검사

Petersen 등(1984)이 Offer의 Self-Image Questionnaire를 청소년과 아동에게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SIQYA(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를 사용하였다. 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여러 연구들(이춘재 등, 1991; 이춘재와 박금주, 1994; 박금주와 문은영, 1993, 1995)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척도는 6점 Likert척도로, 6점은 '나와 매우 비슷하다', 1점은 '나와 전혀 다르다'로 자기보고식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으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척도의 9개 하위영역 중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한가지 영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8개 차원을 사용하였다.

① 정서상태 (emotional tone)

정서상태란 우울 기분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나는 쉽게 화를 낸다', '나는 쉽게 상처받는다', '나는 불안해 한다'와 같은 부정적인 항목(우울, 외로움, 불안)과 '화를 참는 편이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항목으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이 적은 더 나은 정서상태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 11개 문항이며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80이다.

② 충동통제(impulse control);

이것은 분노나 다른 충동적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얼마나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예를들어 '나는 대체로 화를 참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난폭해진다'와 같은 모두 8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이전 연구(Ebata & Petersen, 1986)에 의하면 이 척도는 학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 우울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변별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85이다.

③ 정신병리(psychopathology)

이 영역은 괴상한 사고, 혼동감, 과대망상, 환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는 항상 뭔가를 두려워한다', '나는 혼란에 빠질 때가 많다', '나는 이대로 살기보다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덜 병리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82이다.

④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

이것은 가족내 관계의 질(quality)에 관한 청소년의 지각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가족관계, 부모 관계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에 관한 17개 문항이다. 그 예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어느 한 분을 더 좋아한다', '대체로 내가 집에서 성가신 존재라고 생각된다',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83이다.

⑤ 친구관계(peer relationship)

이 영역은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한 태도와 만족, 친구사귀는 능력과 같은 사회적 만족도와 유능감을 측정하는 8개 문항이 속한다. 예를 들어 '나는 여러사람들의 모임에서 즐겁게 지낸다', '친구를 사귀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등이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83이다.

⑥ 대처능력(mastery and coping)

이것은 10개의 문항으로 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현재 또는 예견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유능감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81이다.

⑦ 신체상(body image)

자신의 신체와 신체 발달 상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9개 문항이 이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면 '나는 현재의 내 키에 만족하고 있다' '남들이 틀림없이 내 신체발육이 시원치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등이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83이다.

⑧ 우수한 적응능력 (superior adjustment)

자신의 능력에 대해 또는 주변 상황의 조절

능력에 대한 우월감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83이다.

2. Harter의 청소년용 자기 개념 척도:

본 연구에서는 Harter의 청소년용 자기 개념 척도의 8개 하위척도 중 5개의 영역을 사용하였다. 각기 5문항으로 모두 25문항으로 되어 있다.

① 학업적 능력 (scholastic competence)

자신이 영리하고 학교 수업시간에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67이다.

②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

동성의 친구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한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75이다.

③ 운동능력(athletic competence)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75이다.

④ 신체매력(physical appearance)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지 또는 자신의 외모나 몸매가 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지를 측정하는 영역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67이다.

⑤ 자기 가치감(self-worth)

자신이 가치롭다고 생각하고 또 만족하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66이다.

결 과

학교, 성별에 따른 8개 집단 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하고 유의미한 영역에서는 Duncan 사후검증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별 효과 또한 살펴보았다. 자기상 검사(SIQYA)의 하위영역과 Harter의 자기개

념의 하위영역을 다시 분류하여 심리적 영역, 적응 영역, 사회적 영역, 학업 영역, 신체 및 운동 영역, 자기 가치감 영역으로 정리하였다. 자기상 검사의 각 하위영역은 모두 6점 만점이며 자기개념 검사는 4점 만점이며, 각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다음 문항 수로 나누어 그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긍정적이다.

1. 심리적 영역

1) 충동통제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여($F_{7,790}=7.75, P<.01$), 남자($M=3.58, SD=0.69$)가 여자($M=3.43, SD=0.78$)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충동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 여자를 구분하여 학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정서상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F_{7,792}=9.31, P<.01$), 남자($M=3.78, SD=0.84$)가 여자($M=3.59, SD=0.88$)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자의 학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자의 정서상태에 있어서 학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_{3,428}=2.95, P<.05$). 외국어고가 예술고(미술), 실업고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2. 정서상태의 평균과 표준편차

예술고(135)	일반여고(104)	실업고(101)	외국어고(94)
3.52(0.87)	3.64(0.86)	3.44(0.90)	3.79(0.86)

3) 정신병리

성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F_{7,790}=7.69, P<.01$), 남자($M=3.60, SD=0.77$)가 여자($M=3.45, SD=0.73$)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남자 여자를 분리해서 학교 집단간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이다.

2. 적응영역

1) 대처능력

여자의 대처능력에 있어서 학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F_{3,428}=13.30, P<.001$). 실업고가 일반여고, 예술고, 외국어고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외국어고가 일반여고와 실업고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남자 여자, 성별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예술고와 외국어고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3. 대처능력에 있어서 평균과 표준편차

예술고(135)	일반여고(104)	실업고(101)	외국어고(94)
4.12(0.80)	3.96(0.71)	3.62(0.65)	4.26(0.82)

2) 우월한 적응능력

남자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여자의 경우 학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_{3,428}=9.61, P<.001$). 실업고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고 외국어고가 일반여고, 실업고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예술고와 외국어고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4. 우월한 적응능력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예술고(135)	일반여고(104)	실업고(101)	외국어고(94)
4.01(0.71)	3.84(0.66)	3.62(0.67)	4.08(0.62)

3. 사회적 영역

1) 친구관계

여자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의 경우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F_{3,359}=3.48, P<.05$). 과학고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가장 낮아 친구관계가 부정적이었다. 성별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5. 친구관계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체육고(96) 일반고(96) 기계공고(101) 과학고(70)			
3.83(0.86)	3.83(0.95)	4.12(0.87)	3.70(0.78)

2)가족관계

여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여 ($F_{3,428}=6.88, P<.001$). 외국어고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만족스러운 가족관계를 나타냈다.

표6. 여자의 가족관계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예술고(135) 일반여고(104) 실업고(101) 외국어고(94)			
4.54(0.75)	4.47(0.77)	4.30(0.70)	4.77(0.63)

남자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여 ($F_{3,359}=6.99, P<.001$). 과학고가 일반남고와 기계공고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일반남고가 체육고와 과학고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남자 여자, 성별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7. 남자의 가족관계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체육고(96) 일반고(96) 기계공고(101) 과학고(70)			
4.59(0.78)	4.24(0.82)	4.39(0.74)	4.72(0.56)

표8. 사회적 수용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예술고(135) 일반여고(104) 실업고(101) 외국어고(94)			
2.45(0.66)	2.64(0.63)	2.40(0.65)	2.58(0.60)

(4점 만점)

4. 학업능력

성별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분리한 결과 학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여 ($F_{3,428}=17.20, P<.001$), 실업고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일반여고가 예술고와 외국어고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9. 여자의 학업능력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예술고(135) 일반여고(104) 실업고(101) 외국어고(94)			
2.42(0.59)	2.26(0.55)	2.02(0.43)	2.53(0.53)

(4점 만점)

남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F_{3,359}=7.42, P<.001$), 일반남고와 과학고가 체육고와 기계공고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10. 남자의 학업능력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체육고(96) 일반고(96) 기계공고(101) 과학고(70)			
2.15(0.51)	2.38(0.54)	2.20(0.40)	2.46(0.50)

(4점 만점)

5. 신체 및 운동능력

1) 신체상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F_{7,790}=45.52, P<.0001$), 남자($M=3.68, SD=0.76$)가

여자(M=3.33, SD=0.71)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남자 여자를 분리한 결과 학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신체매력

성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F_{7,793}=43.43, P<.0001), 남자(M=2.38, SD=0.62)가 여자(M=2.09, SD=0.59)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녀를 분리해서 학교 집단 간 차이를 본 결과 남자의 경우 차이가 없으나 여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_{3,428}=3.43, P<.05). 실업고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11. 신체매력에 있어서 평균과 표준편차

예술고(135) 일반여고(104) 실업고(101) 외국어고(94)			
2.14(0.59)	2.13(0.59)	1.93(0.59)	2.16(0.58)

(4점 만점)

3) 운동능력

여자 집단 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여 (F_{3,368}=6.08, P<.001), 다른 집단에 비해 과학고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12. 운동능력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체육고(96) 일반고(96) 기계공고(101) 과학고(70)			
2.82(0.62)	2.79(0.70)	2.70(0.68)	2.41(0.65)

(4점 만점)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F_{7,794}=57.21, P<.0001), 남자(M=2.70, SD=0.68)가 여자(M=2.30, SD=0.77)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5. 자기가치감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F_{7,793}=15.77, P<.0001), 남자(M=2.32, SD=0.61)가 여자(M=2.14, SD=0.66)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자 여자를 분리해 학교집단 간 차이를 본 결과 남자의 경우 차이가 없으나 여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_{3,428}=7.14, P<.001). 실업고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13. 자기가치감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예술고(135) 일반여고(104) 실업고(101) 외국어고(94)			
2.17(0.69)	2.14(0.65)	1.90(0.51)	2.33(0.71)

(4점 만점)

논 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상 검사와 자기개념 검사를 실시하였다. 남학생들은 일반 일반고, 과학고, 체육고, 기계공고에는 여학생들의 수가 적었고 예술고는 남학생 수가 적어서 각 고교별로 남 녀 수를 동일하게 표집할 수가 없었다. 능력과 소질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에 자기자신을 생각하는 자기상과 자기개념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소질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표집하여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능력과 소질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중학교때와는 달리 능력 집단내에서 자기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를 확인해 보려는 의도도 있었다. 어떤 집단이든지 능력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므로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 능력있는 사람들도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기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기상과 자기개념의 하위영역인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신체상, 신체상태, 신체매력 및 자기가치감에서 남녀 차이가 있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처능력, 우월한 적응능력, 친구관계, 가족 관계,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의 영역에서는 남녀 학생들간에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자(이춘재, 광금주, 1994)의 이전 연구에서는 국민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까지 7개 학년의 자기상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서상태와 신체상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있었으나 충동통제와 정신병리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정서상태와 신체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이고 충동통제와 정신병리는 저학년 때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본 연구)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이 차이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계속 유지될 것인지를 앞으로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신체상은 여러 영역에 관계없이(광금주, 문은영, 1993, 1995; 이춘재, 광금주, 1994, 및 본 연구)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이고 신체매력도 남자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에 있어 신체나 외모는 자기상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자기 신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대가 높아서 오히려 자기신체나 외모에 만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자기 가치감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주의의 평가가 남들에게 긍정적이기 때문인지 장래전망을 할 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희망적이기 때문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며 앞으로 규명해 볼 과제이다.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생들이나 실업계 고등학생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자.

남자들은 학교에 따라 자기상과 자기개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기계공고 학생들이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며 과학고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본 것이 흥미롭다. 과학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친구들 간에 생기는 문제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결과는 달랐다. 추측해보면 과학고 학생들은 공부때문에 경쟁이 심해서 친구를 사귀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체육고 학생들은 집단 활동이 많아서 친구간에 우정을 쌓을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학업능력에서 과학고 학생들이 체육고나 기계공고 학생들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흥미롭다. 역시 당연한 사실이지만 운동능력에서 과학고 학생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점은 학교당국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족관계에서는 과학고가 가장 좋고, 그다음 이 체육고, 기계공고, 일반고의 순서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고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문제가 없고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과학고와 체육고가 다른 학교보다 가족관계가 좋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달리 외국어 고등학생들이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 자기개념을 보이고 실업고 학생들이 부정적 자기개념을 보인다. 정서상태, 대처능력, 우월한 적응능력, 가족관계, 학업능력, 자기가치감에서 외국어고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실업고 여학생들은 정서상태, 대처능력, 우월한 적응능력, 가족관계, 학업능력, 신체매력 및 자기가치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예술고 여학생들은 일반고 여학생들보다 외국어고 여학생들과 더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자기상과 자기개념의 학교간 차이가 남녀 간

에 매우 다른 것이 흥미있다. 여학생들은 외국어 고와 예술고 학생들이 비슷하고 긍정적인데 반해 실업고 학생들이 매우 부정적 자기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학교간 차이가 여자들 만큼 뚜렷하지 않았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기상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규명해 볼 과제이다. 공부든 특기든 한가지 능력이 있으면 자기상이나 자기개념에는 문제가 없다.

학업성적도 특수한 능력도 없는 학생들이 적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고와 예술고, 과학고와 체육고, 체육고와 일반고 학생들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이를 지지해준다.

자기상과 자기개념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변화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입학 당시에서 부터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곽금주, 문은영(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II): 청소년기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춘재, 곽금주(1994).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I):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발달*, 7(2), 119-135.

이춘재, 오가실, 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 89-102.

Chadwick, B. A., Bahr, H. M., & Stauss (1977). Indian education in the city: Correlates of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0(30), 135-141.

Dauber, S.L. & Benbow, C.P. (1990). Aspects of

personality and peer relations of extremely talented adolescents. *Gifted Child Quart.* 34, 10-15.

Fink, M. (1962). Self-concept as it relates to academic under achievement. *Californi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3, 57-61.

Freeman, J. (1979). *Gifted children: Their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in a Social Context*. Lancaster: MTP Press

Hansford, B. C. & Hattie, J. A.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achievement/performance measures, *Review Education Research*, 52, 123-142.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Harter, S.(1990). Processes underlying adolescent self-concept formation. In R. Montemayor, G.R.Adams, & T.P.gullo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Transitional perio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Hoge, D. R., smit, E. K. & Crist, J. T. (1995). reciprocal effects of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sixth and seventh grad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3), 123-142.

Lockeley, A., & Douvan, E. (1979). Problem behavior in adolescence. In E, S, Gomberg & Franks (Eds.), *Gender and disordered behavior: Sex differences in psychopathology* (pp71-100). New York: Bruner/Mazel.

Offer, D., Ostrov, E., Howard, K. I. (1984). *Patterns of adolescent self-image*.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etersen, A. C., Schulenberg, J. E.,

- Abramowitz, R. H., Offer, D., Jarcho, H.D.(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SIQY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2), 93-111.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 Scheiver, M. A., & Kraut, R. E.(1979). Increasing educational achievement via self-concept change. *Revised Education Research, 49*, 131-150.
- Silon, E. L. & Harter, S.(1985). Assessment of perceived competence, motivational orientation, and anxiety in segregated and mainstreamed educable mentally retarded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 217-230.
- Steinberg, L.(1985). The ABCs of transformations in the family at adolescence: Changes in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Presented at the Third Biennial Conference on Adolescence Research*.
- Van Bostel, H.W. & Monks, F.J. (1992). General, social, and academic self-concepts of gifted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1*(2), 169-185.
- Wintre, M.G. & Crowley, J.M. (1993). The adolescent self-concept: A Functional determinant of consultant preferenc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2*(4), 369-385.

Psychosocial development in terms of self-image in Korean adolescents (II)

Choon-Jae Lee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was one of the research series that examined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t by the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SIQYA). The subjects were 797 second grade boys and girls in 6 special high schools and general high school. They were administered 8 subscales of SIQYA and 5 Harter's self-concept scale. As results, boys had more positive self image than girls in such subscales as emotional tone, impulse control psychopathology, body image, physical appearance and self-worth. Science high school boys had more positive self-image than the other boys in such subscales as family relationship and scholastic competence but more negative in peer relationship and atheletic competenc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girls had most positive self image among girls in such subscale as emotional tone, body image, mastery and coping, superior adjustment, family relationship, scholastic competence, and self-worth.

부록

여자에 있어 학교별 평균과 표준편차

	예술고(135)	일반여고(104)	실업고(101)	외국어고(94)	F
SIQYA(6점 만점)					
충동통제	3.41(0.78)	3.47(0.68)	3.35(0.75)	3.51(0.92)	
정서상태	3.52(0.87)	3.64(0.86)	3.44(0.90)	3.79(0.86)	
신체상	3.38(0.75)	3.26(0.67)	3.22(0.77)	3.45(0.62)	
대처능력	4.12(0.80)	3.96(0.71)	3.62(0.65)	4.26(0.82)	*
정신병리	3.32(0.69)	3.50(0.77)	3.35(0.71)	3.72(0.68)	
우월한 적응능력	4.01(0.71)	3.84(0.66)	3.62(0.67)	4.08(0.62)	*
친구관계	3.93(0.97)	4.12(0.91)	3.82(0.95)	3.99(1.06)	
가족관계	4.54(0.75)	4.47(0.77)	4.30(0.70)	4.77(0.63)	*
자기개념(4점 만점)					
학업능력	2.42(0.59)	2.26(0.55)	2.02(0.43)	2.53(0.53)	*
사회적 수용	2.45(0.66)	2.64(0.63)	2.40(0.65)	2.58(0.60)	*
운동능력	2.33(0.77)	2.22(0.79)	2.42(0.75)	2.19(0.75)	
신체매력	2.14(0.59)	2.13(0.59)	1.93(0.59)	2.16(0.58)	*
자기가치감	2.17(0.69)	2.14(0.65)	1.90(0.51)	2.33(0.71)	*

남자에 있어 학교별 평균과 표준편차

	체육고(96)	일반고(96)	기계공고(101)	과학고(70)	F
SIQYA(6점 만점)					
충동통제	3.67(0.68)	3.42(0.72)	3.63(0.71)	3.62(0.62)	
정서상태	3.85(0.90)	3.63(0.89)	3.89(0.83)	3.72(0.64)	
신체상	3.68(0.80)	3.63(0.78)	3.80(0.75)	3.60(0.69)	
대처능력	3.95(0.70)	4.01(0.69)	4.00(0.68)	4.01(0.66)	
정신병리	3.60(0.85)	3.52(0.77)	3.73(0.80)	3.54(0.57)	
우월한 적응능력	3.76(0.69)	3.74(0.63)	3.81(0.73)	3.92(0.53)	
친구관계	3.83(0.86)	3.83(0.95)	4.12(0.87)	3.70(0.78)	*
가족관계	4.59(0.78)	4.24(0.82)	4.39(0.74)	4.72(0.56)	*
자기개념(4점 만점)					
학업능력	2.15(0.51)	2.38(0.54)	2.20(0.40)	2.46(0.50)	*
사회적 수용	2.49(0.62)	2.52(0.54)	2.57(0.50)	2.54(0.56)	
운동능력	2.82(0.62)	2.79(0.70)	2.70(0.68)	2.41(0.65)	*
신체매력	2.35(0.60)	2.30(0.63)	2.40(0.62)	2.50(0.61)	
자기가치감	2.33(0.64)	2.22(0.63)	2.31(0.59)	2.44(0.56)	